



미 증시, 경제 정상화 기대 속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6 일(수) 미국 증시는 4 월 PCE 물가 발표를 앞둔 대기심리가 상존했음에도, 경제 정상화 기대감 지속, 암호화폐 시장 폭락세 진정 등에 힘입어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다우 +0.03%, S&P500 +0.19%, 나스닥 +0.59%, 러셀 2000 +1.97%). 업종별로는 에너지(+0.93%), 경기 소비재(+0.90%), 커뮤니케이션(+0.58%) 등이 강세, 헬스케어(-0.56%), 필수소비재(-0.18%), 기술(-0.01%)만 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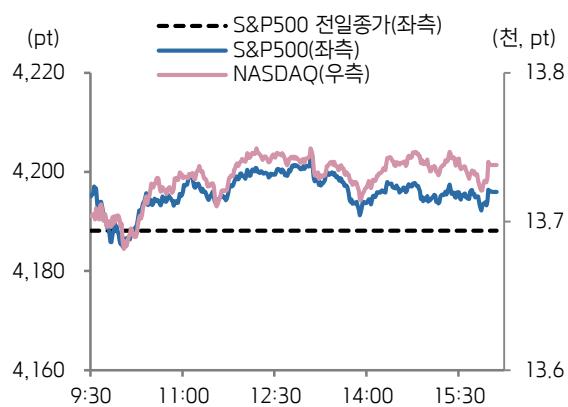
또한 포드(+8.5%)가 2030 년까지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4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투자 규모 상향(220 억달러→300 억달러)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전기차 및 2 차전지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전일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 랜들 월스 연준 부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인다면 테이퍼링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고용시장 회복도 고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심리를 완화시키는데 기여.

미국 증시 평가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 속도 확대로 경제 활동 재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실물경제주체들도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경제 정상화 관련주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다만 최근 들어서는 소재, 산업재보다는 여행, 레저 등 서비스 업종들로 자금 유입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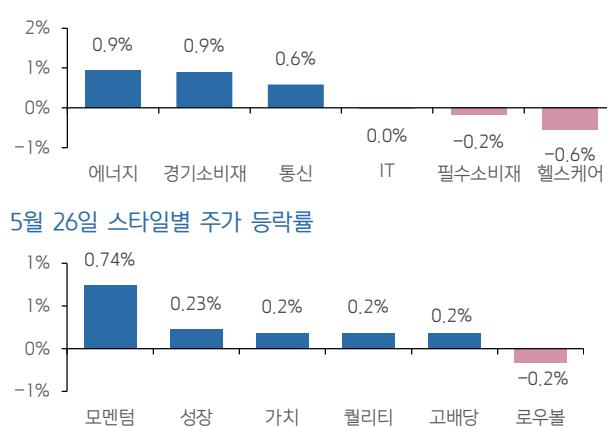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전 해소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시장 등 실물경제 회복세로 소비자들은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또한 일부 매파 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시장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5월 26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2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4 %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6.6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포드발 훈풍으로 인한 국내 전기차 및 2차전지 테마주 주가 강세 가능성
- 금통위에서의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코멘트 변화 여부
- MSCI 리밸런싱에서 기인한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26 일(수) 한국 증시는 장 초반 경제 정상화 수혜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장중 뚜렷한 신규 대내외 재료 부재 속 인플레이션 경계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09%, 코스닥 +0.41%). 장중 외국인의 수급 패턴이 일정치 않았다는 점도 장중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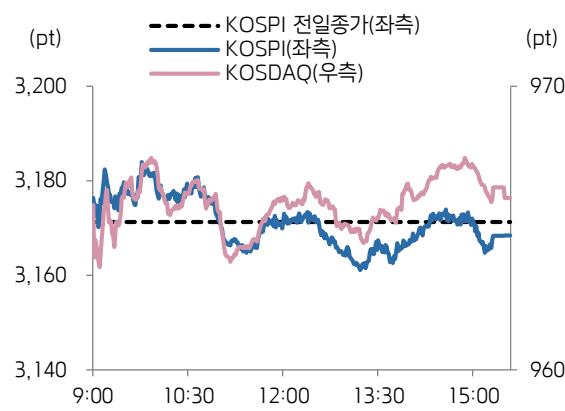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전기기기(+4.5%), 기계(+2.8%), 건설(+1.5%) 등이 강세, 개별약재가 부각된 LG 화학(-6.7%)을 포함한 화학(-1.0%)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였으며, 운수장비(-0.9%), 의약품(-0.8%) 업종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 코스피 기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389 억원, 310 억원 순매도, 기관이 2,823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미국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 중국의 산업 이익 지표, 미국 선물시장 동향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업종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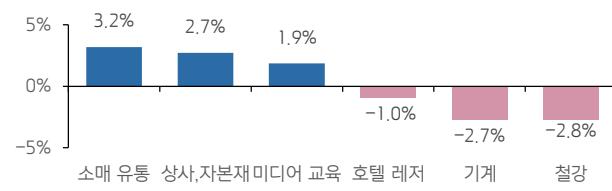
전 거래일 개별 약재로 급락했던 LG 화학을 포함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미국 포드발 훈풍에 힘입어 강세를 연출할 지 여부도 체크 포인트라고 판단. 금일 종가 기준으로 MSCI 의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 만큼, 장 후반부터 프로그램 비자익 채널을 통한 기계적인 리밸런싱 물량으로 수급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도 유의

KOSPI & KOSDAQ 일중 차트(5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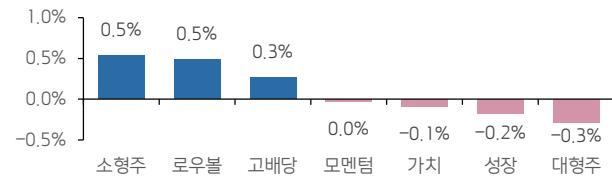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26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2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